

## 16세기 리경창의 유물론사상

박문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세기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동방에서는 유물론과 변증법적사상이 발전하였습니  
다.》(《김정일전집》제5권 242페이지)

중세기에 우리 나라에서는 유물론과 변증법적사상이 매우 발전하였다.

그 대표적인것이 15-16세기 우리 나라 기일원론철학이다.

이 시기 우리 나라에서는 김시습(호는 매월당, 1435-1493년), 서경덕(호는 화담, 1489-1546년)과 같은 이름있는 유물론철학자들이 당시 지배계급의 통치사상이었던 성리학적관념론을 비판하고 유물론적인 기일원론철학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세계철학사발전에서 긍정적인역할을 하였다.

진보적인 철학사상의 발전은 해당 력사적시대의 반동적인 사상을 반대하는 투쟁속에서 그리고 선행시기 사상과의 계승과 혁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사상을 계승한 철학자들가운데는 장유, 임성주, 최한기외에도 리경창도 있었다.

리경창(호는 서촌, 1555-1611년)의 철학사상에서 이론적기초로 된것은 기본적으로는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이였으며 이것이 그의 사상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수 있다. 그가 남긴 《서촌집》에 들어있는 철학사상과 관련된 글들은 《원리기설》, 《천인설》, 《주천도설》, 《자경사》, 《훈계서》, 《역괘효통례》이다.

리경창은 무엇보다먼저 일기사상과 유물론적인 우주생성론을 제기하였다.

일기사상과 그에 기초한 우주생성론은 기일원론철학에서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서 성리학적관념론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데서 첫째가는 문제이다.

리경창은 《태허는 맑고 형체가 없으나 오직 일기(하나의 기)일따름》이며 《그것이 이미 갈라져서 가볍고 맑은것은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무겁고 흐린것은 아래로 내려와 땅이 되었다.》(《천인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로 이루어진 하늘은 쉬임없이 운행하고 땅은 그 형체를 응취하여 중가운데 항상 정지하며 기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것이고 형체의 질은 아래로 떨어지는것이니 하늘은 형체에 의거하고 땅은 기(氣)에 붙어있으며 하늘과 땅이 스스로 서로 의지하면서 태허공간가운데서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매달려있으면서 만세에 걸쳐 둥글게 굴면서 존재하는것이다.》(《천인설》)라고 하였다.

서경덕은 《태허설》에서 《태허가 허하면서 허하지 않는것은 태허가 곧 기》이기때문이며 기를 《허하다고 하면서 기라고 하는것은 허하고 고요한것이 기의 본체》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기의 오르려는 성질과 떨어지려는 성질이 서로 비등하여 지구는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정지되어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리경창은 서경덕의 일기사상과 우주생성론을 그대로 계승하고있으며 이것은 그의 세계관의 유물론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리경창은 리를 기와 분리된 독립적실체로 보는 성리학적견해를 반대하였다. 이에 대하여 그는 《형체가 없는것은 리이며 형체가 있는것은 사물(기)이다.》(《원리기설》), 《리가 있으면 곧 기가 있고 기가 있다는것은 곧 형체가 있다는것이다.》(우와 같은 글), 《리는 기에 붙어서 운동하며 기는 리를 바탕으로 하여 존재한다. 둘은 혼합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천인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리와 기의 불가분리성을 강조하였으며 리기일물설의 립장에 서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경창은 다음으로 운동능력은 기에 있으며 기로 이루어진 천지만물은 운동변화하며 무한하고 불멸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서경덕은 《원리기》에서 기의 자기 운동에 관한 사상과 운동의 원인과 동력에 관한 《기자이》사상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태허 즉 기》사상을 통하여 기로 이루어진 물질세계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기불멸론, 물질불멸에 관한 사상을 내놓았다.(《화담집》 권2 잡저 리기설, 원리기)

기의 자기 운동에 관한 사상과 《기자이》사상, 기불멸론은 기일원론철학사상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였다.

리경창은 기는 운동능력이 있는것으로 하여 천차만별한 사물현상이 발생하는데(《원리기설》) 그것이 운동변화하는 과정에 《조화가 류행되어 추운것이 가면 더운것이 오고 해가 가면 달이 와서 그윽하고 밝으며 낮과 밤이 가고 오는것, 굽히고 펴는것의 변화가 끝이 없다. 이것이 후천이다. 정지가 극에 이르면 운동하고 운동이 극에 이르면 멎어있게 되니 일동일정은 서로 근원한다.》(《천인설》)라고 하였다.

여기에는 사물현상의 운동변화는 운동능력을 가진 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것은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로의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소박한 변증법적사상이 반영되어있다.

그는 기로 이루어진 천지만물은 《큰것은 무외(끝이 없는것)하고 그 작은것은 무내(안이 없는것)》(《원리기설》)하며 그것의 《앞을 추적해보면 그 시작을 알수 없고 그 끝을 보아도 종말이 보이지 않는다.》(《천인설》)라고 하면서 전체로서의 우주자연은 시작도 종말도 없는 존재, 영원불멸한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리경창의 이와 같은 견해는 서경덕이 내놓은 기의 자기 운동에 관한 사상, 기불멸설을 진리로 인정하고 계승발전시켰다는것을 말해준다.

리경창은 다음으로 인간의 생사문제, 귀신의 존재문제에서 유물론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그는 우선 인간의 생사문제를 물질적인 기와 관련시켜 해석하였다.

그는 《기가 모이면 사는것이요 기가 흩어지면 죽게 되는것이다. 죽는것과 사는것, 사람과 귀신은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다. 이것은 그 누구나 그렇게 되는것이다. 그 실체(생과사, 사람과 귀신-필자)는 음양의 두 극단에 불과하다.》(《서촌집》 훈계서)라고 하였다.

귀신과 생사문제에 대한 리경창의 기본주장은 사람이 죽고 사는것이나 귀신은 단지 음양기의 취산일따름이라는것이다. 여기에는 귀신과 인간의 생사가 본질에 있어서 물

질적인 기의 한 형태이거나 그의 취산작용에 의한 제현상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다시말하여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것은 음양의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것이다.

리경창의 이러한 주장은 관념론적생사관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유물론적견해이다.

그는 또한 사람의 생사는 개인의 주관적의사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그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고 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다. 이미 그러한 시작이 없다면 그러한 끝도 없을것ियो 이미 그러한 생이 없다면 그러한 죽음도 없을것이다. 살아있으면 사람으로 되는것ियो 죽으면 귀신이 되는것이다. 생사는 명에 달려있어 내가 어찌할바가 못된다.》(《서촌집》훈계서)라고 하였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에서 사람의 생사문제가 기일원론철학사상과의 련관속에서 전개되고있는 사실은 유물론과 무신론이 밀접히 결합되면서 신비주의와 숙명론을 반대하여 진출한 16세기 진보적사상발전의 또 하나의 합법칙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된다.

선행학설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정한 사상이 력사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데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력사는 진보적인 세계관과 반동적인 세계관의 투쟁의 력사이며 그 기본조류를 이룬것은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이었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은 현실세계를 물질적인 기에 의하여 설명하는 유물론적견해로서 봉건통치제도를 합리화하는 성리학적관념론에 타격을 주었으며 유물론철학을 한단계 발전시켰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의 진보성은 무엇보다먼저 선행한 기일원론철학사상과의 계승적련관을 보장함으로써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성리학적관념론에 타격을 주었다는데 있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은 세계의 시원, 본질을 물질적인 일기로 보고 기에 의한 우주생성론을 제기함으로써 15세기부터 제기되고 발전하여온 기일원론철학사상의 계승적련관을 보장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기에 대한 견해는 고대로부터 제기되어 삼국시기를 거쳐 고려시기 리규보에 의하여 원기론이 제기됨으로써 한단계 발전하게 되었다.

15세기에 이르러 김시습은 리규보의 원기론에 기초하여 세계의 시원, 본질에 대한 일기사상과 《태극 즉 음양》사상, 우주생성에 관한 보다 전개된 견해, 리기호상관계문제를 기일원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리규보의 원기론을 보다 높은 단계으로 끌어올렸다. 16세기 서경덕은 김시습의 기일원론적견해를 계승하면서 세계의 시원, 본질인 기의 물질적성격을 리론적으로 확인하고 《태허 즉 기》사상을 통하여 물질세계의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적인 영원성에 관한 기불멸론, 기의 자기 운동에 관한 사상과 물질운동의 원인과 동력에 대한 유물론적이며 변증법적인 견해를 제기함으로써 기일원론철학을 리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지난 시기 학계에서는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사상에 대하여 리구에 의하여 계승되었다는것을 밝혔다.

리구(호는 련방, ?-1570년)는 서경덕의 제자로서 기일원론철학을 고수하고 발전시킨 철학자이다. 그의 글은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으며 리황의 《퇴계집》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하여 그의 사상을 연구분석하였다.

리경창은 선행시기 서경덕의 기일원론철학을 직접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킴으로써 16세기말-17세기초 유물론사상을 보다 풍부히 하였으며 그 이후 장유(호는 계곡, 1587-1638년), 임성주(호는 록문, 1711-1783년)의 기일원론철학의 발전에 이론적 밑거름을 마련해줌으로써 우리 나라 중세기 하나의 조류를 이루었던 기일원론철학사상의 계승적련관을 보장하였다.

리경창은 《태허는 맑고 형체가 없으나 오직 일기(하나의 기)일 따름》(《천인설》)이라고 함으로써 태허가 곧 기라는 사상을 전제로 하여 유물론사상을 전개함으로써 장유와 임성주의 기일원론철학사상발전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의 진보성은 다음으로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성리학적관념론에 타격을 주고 유물론적인 생사관을 제기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널리 류포되어있던 온갖 미신신비설을 부정하였다는데 있다.

리경창은 우선 당시 철학의 중심문제였던 리기호상관계문제를 기일원론적으로 해결하고 사물의 리치, 법칙인 리를 독립적인 실체로 만들고 그에 신비적인 창조력을 부여한 성리학적관념론의 출발적원리와 부당성을 비판하였다.

성리학적관념론자인 리황은 세계의 모든것의 주재자, 창조주가 천리이며 천리에 의하여 자연과 사회, 인간활동의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리일원론철학의 원리를 체계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봉건국가의 모든 통치질서와 봉건적인 계급신분관계, 료리도덕질서를 신성화하고 절대화하였다.(《퇴계집》 권25, 《퇴계집》속집 권8 참고)

따라서 성리학적관념론을 이론적으로 비판하는것은 조선봉건왕조의 사상적기초를 허물어버리고 사상정신생활의 면에서 사람들의 자주식발전의 길을 가로막고있던 주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것으로 되었다.

리경창은 리를 기와 분리시켜보는 성리학적관념론을 비판한데 기초하여 유물론적인 일기사상과 우주생성론을 제기하고 운동능력이 기에 있으며 천지만물은 운동변화하는 과정에 한 형태로부터 다른 형태로 이행한다는 사상, 기로 이루어진 천지만물의 공간적인 무한성과 시간적인 영원성, 기불멸에 관한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성리학적관념론을 원리적으로 비판배격하였다.

리경창은 또한 유물론적생사관을 제기함으로써 이 시기 널리 류포되어있던 온갖 미신신비설을 타파하는데도 기여하였다.

리경창은 사람이 죽고 사는것이나 귀신은 단지 음양기의 취산일 따름이라고 함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생사현상을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해하려는 유물론적인 견해를 제기하여 종교관념론적생사관을 정면에서 부정하였다.

그리고 리경창은 사람의 생사는 개인의 주관적의사로써는 어찌할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결론함으로써 유물론사상을 생사문제에까지 철저히 관철시켰다.

리경창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사람들의 건전한 사고를 좁히고 구속하던 온갖 미신신비설을 반대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었다.

특히 리경창이 시작과 끝, 삶과 죽음, 사람과 귀신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이러한것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어쩔수 없다고 본것은 미신신비설을 이론적으로 극복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견해이며 당시로서는 비교적 철저한 무신론사상이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인격신이나 귀신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람들의 운명개척에서 현실적태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일정한 긍정적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리경창의 철학사상은 계급적으로 볼 때 훈구파대관료들의 정치, 경제적전횡에 비판적태도를 가진 하층량반의 기분과 지향을 반영한데 불과하였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먼저 세계의 시원, 본질을 물질적인 기로 보았으나 기의 물질적성격을 이론적으로 밝히지 못한것이다.

성리학적관념론자들이 리와 기를 기본범주로 하여 리론을 전개하면서 기와 분리된 리를 독립적인 실체로 전환시킨것은 기를 공기나 기체립자와 같이 감각적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허》나 《무》로 보았기때문이다. 따라서 성리학적관념론의 비과학성을 밝혀내자면 기의 실재성과 함께 물질적성격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기가 객관적으로 실재하며 그것이 세계의 시원, 본질로 된다는 유물론적립장을 고수할수 있었다.

그러나 리경창은 기의 물질적성격을 밝히는것을 문제점으로도 제기하지 못함으로써 서경덕의 철학사상보다 퇴보하였다.

리경창은 세계의 시원으로서의 물질적인 기를 철학적으로 리해하지 못하고 자연과학적리해에 머물러있었다.

물질세계의 객관적실재성을 주장하는 유물론을 과학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물질에 대한 철학적리해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리경창은 물질에 대한 리해를 사물을 이루는 가장 작은 물질적재료를 밝히는 방향에서 하였다. 그는 기를 공기나 안개, 먼지와 같이 사물을 이루는 구체적인 미시립자로 보았으므로 기가 의식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재를 의미한다는 철학적리해를 주지 못하였다.

리경창은 자기의 기일원론철학의 진리성을 많은 경우 유교경전에서 찾으려고 하였으며 일부 개소에서 관념론적견해도 나타내고있다. 그는 《멀리로는 렬락(송나라 성리학자들)의 훈시를 따르》려고 하면서 늘 《경사자집》 및 《혹문》, 《대학》과 《성리대전》과 관련된 저서들을 책상우에 쌓아두고 고증하기를 잘하였다고 한다.《서촌집》행장) 이것은 리경창이 리론연구를 하면서 유교경전을 필독도서로 삼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그는 기일원론적견해들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언급하면서도 《이런 까닭에 정자(程子)가 <동정은 끝이 없고 음양은 시작이 없으며 체용은 하나에 근원하나 현저히 작은것도 사이가 없다.>고 말하였다.》(《서촌집》원리기설)라고 하면서 정자의 학설에서 그 진리성의 근거를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리경창은 세계관문제에서 유물론을 끝까지 관철하지 못하였다. 그는 일기사상을 제기하고 유물론적인 우주생성도식도 제기하면서도 《리통기국》설을 인정하는것과 같은 제한성을 나타내었다. 그는 《리와 기의 묘한바를 론한다면 대체로 리는 형체가 없고 기는 형체가 있는것으로 하여 리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여있다. ...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리를 각각 갖추어서 만가지 리가 시초에서부터 동시에 낳는것이다.》(《서촌집》원리기설)라고 하였다.

이것은 그가 리기이원론자였던 리이의 《리통기국설》에 동조하였으며 성리학자들의 견해에 많이 의거하려고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리경창의 철학사상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계급적으로 볼 때 근로인민대중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철저히 대변하지 못하였으며 료리적견해에서 전적으로 유교관념론에 기초한것이다.

리경창은 하층량반으로서 전체적으로 볼 때 량반지배계급의 립장에 서있었다. 물론 그는 서경덕과 마찬가지로 사림파내부의 량반선비로서 훈구파대관료들의 전횡을 반대하여 벼슬살이를 단념하고 초야에 묻혀 일생을 보냈지만 량반계급으로서의 립장은 변함이 없었다.

리경창은 세계관적문제에서 《하늘은 존귀하고 땅은 비천하다.》(《서촌집》천인설)라는 관점에 서서 봉건륜리도덕규범을 절대화하여 《다섯가지 륜리가운데서 임금과 아버지를 하나로 여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성장할수 있게 해준 왕이 없었더라면 자기도 없었을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아버지와 왕의 《이러한 두터움은 누구나 크게 여겨야 의리가 하나같이 되는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누구나 중히 여겨야 일이 뜻대로 된다. 내 평생 지향하던것이 충효의 도리였으나 조금도 이름을 떨치지 못하였고 충과 효성이 아직 미치지 못하였구나. 아버지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건만 효성으로 부모님들을 봉양하지 못하였구나.》(《서촌집》자경사)라고 하였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으면 아버지의 생존에 례의로써 섬겨야 하고 아버지의 사망에 례의로써 장례를 치르어야 한다. 이미 장례를 지냈으면 례의로써 제사를 치르어야만 효도한다고 말할수 있다.》(우와 같은 책, 훈계서)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왕을 잘 섬기는 봉건륜리도덕규범을 어길수 없는 도리로, 의리로 여기었다.

이것은 리경창이 봉건량반선비로서 왕을 최고통치자로 하는 봉건적중앙집권제의 강화를 지향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제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경창의 철학사상은 명백히 김시습—서경덕으로 이어지는 유물론의 진영에 속하며 그가 16세기 후반기—17세기초 서경덕의 기일원론 철학사상을 계승한 대표적인 유물론철학자라는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민족의 우수한 철학유산들을 적극 발굴정리하고 널리 소개함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북돋아주어 그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 힘차게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실마리어 기일원론철학, 성리학적관념론